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주민만족도 조사(2차) 지원

김 동 혁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dhkim@cni.re.kr

지난여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주요시책의 1차
중간점검을 토대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함

CONTENTS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개선방안

요약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주요시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지난여름 1차 조사에 이어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체감도, 개선도 등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분석함
- 금번 조사에서는 10대부터 60대 이상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성 110명(55.3%)이고 여성 89명(44.7%)으로 총 199명이 조사에 응하였음
- 내포신도시 거주자 199명 중 169명(84.9%)이 축산악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1차 조사와 비교해 10.1% 줄어듦
- 악취체감의 강도는 6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57.8점으로 1차 조사 시 70.4점보다 하락하였으며, 종합적으로 63.3점을 나타냄
- 계절적으로 여름(63.8%), 시간적으로 오전 6-9시(45.2%), 날씨상황은 흐린날(47.2%)에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냄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축산시설의 이전 및 폐업 추진(55.3%)을 가장 집중해야할 사업으로 시민들은 고려하고 있음
- 능동적인 저감정책의 실현으로 축산악취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금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01 조사개요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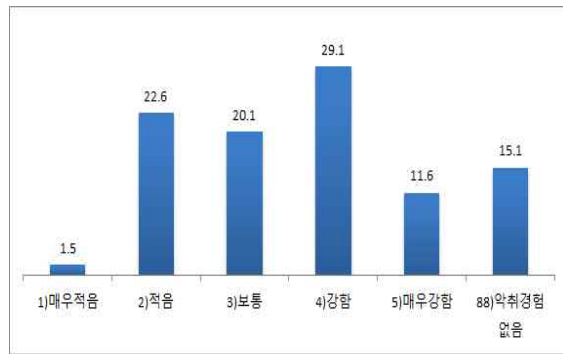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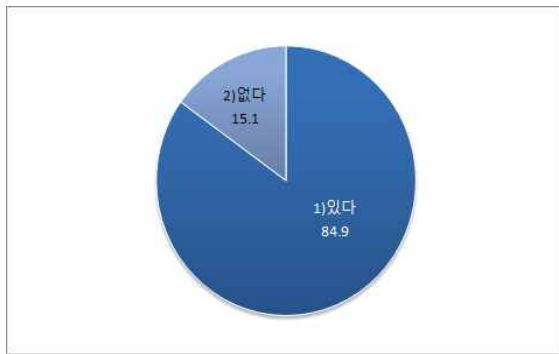
- 내포신도시 주민이 체감하는 축산악취 발생 현황 및 특성 조사
- 축산악취 저감대책의 최종평가와 신규 정책의 방향 설정

2 내용

- 조사기간: 2017년 12월 4일 ~ 12월 18일
- 조사대상: 내포신도시 실거주자 199명
- 조사내용
 - 축산악취 체감도
 - 축산악취 발생특성
 - 축산악취 발생원인
 - 축산악취 개선도
 - 축산악취 개선 정책 방향
- 조사방법: 설문지 배포를 통한 실거주자 조사

02 조사결과

1 축산악취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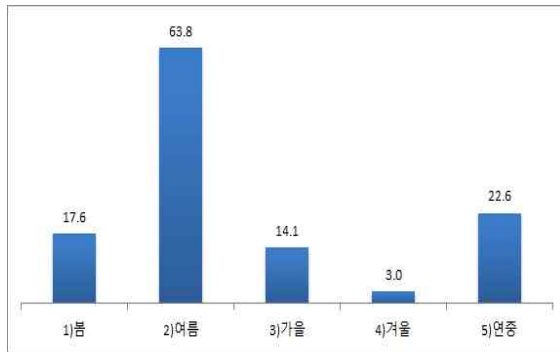


- 내포신도시 거주자 199명 중 169명(84.9%)이 축산악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자 중 81명(47.9%)은 강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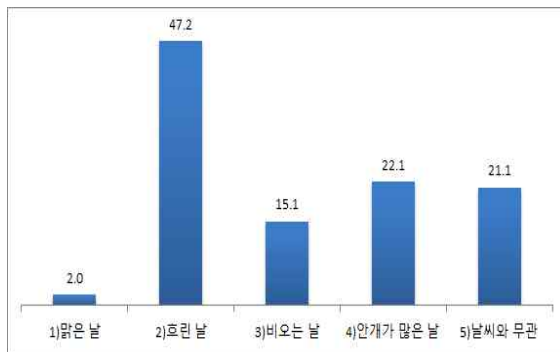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합계		환산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배점	배점×빈도	
유효	1)매우적음	4	1.8	3	1.5	4	1.8	20	140
	2)적음	31	14.1	45	22.6	31	14.1	40	3040
	3)보통	38	17.3	40	20.1	38	17.3	60	4680
	4)강함	94	42.7	58	29.1	94	42.7	80	12160
	5)매우강함	42	19.1	23	11.6	42	19.1	100	6500
	6)악취경험 없음	11	5.0	30	15.1	11	5.0	0	0
	합계	220	100.0	199	100.0	220	100.0	—	26520
	점수	배점×빈도의합/빈도							63.3

- 축산악취 체감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63.3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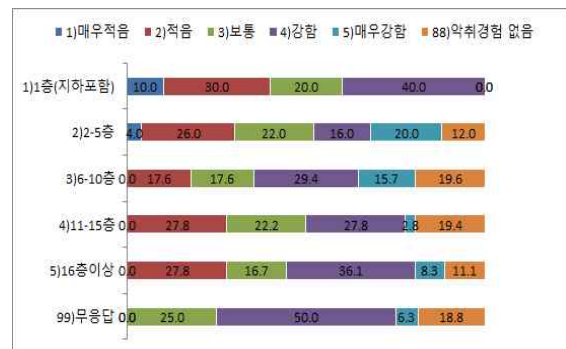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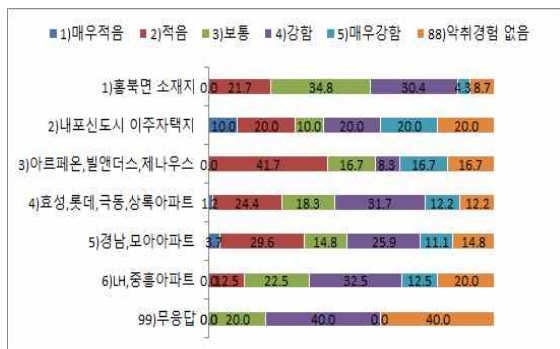
2 축산악취 발생특성



- 악취 발생이 많은 계절로는 여름(63.8%)을, 시간대는 오전 6~9시(45.2%)로 꼽았으며, 지난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발생시기가 여름과 오전시간으로 더 명확해짐



- 악취 발생이 많은 날씨는 호린 날(47.2%)을, 악취를 느끼는 방향은 홍북면사무소 방향(63.8%)로 지난 1차조사 결과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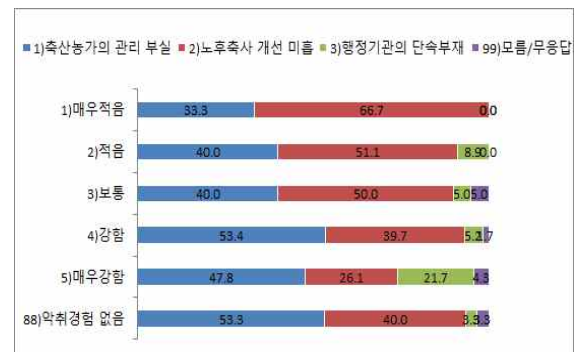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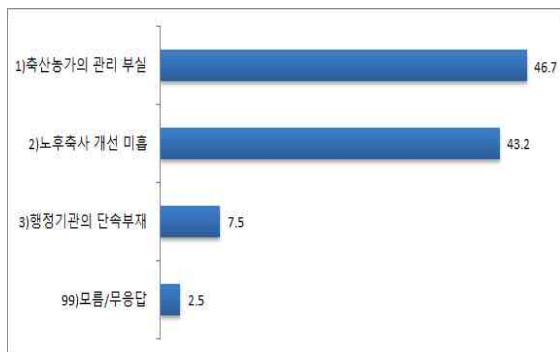


- 악취체감도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 홍북읍 소재지에서 악취강도가 가장 높았고, 내포신도시

내에서는 오피스텔과 극동아파트가 위치한 서쪽에서 악취체감도가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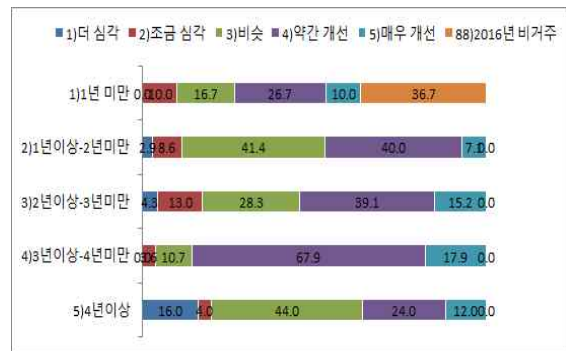
-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높이에 따른 악취체감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고도가 낮아질수록 악취강도의 양극화(적음⇔강함)가 두드러짐(지난 조사결과와 유사함)

3 축산악취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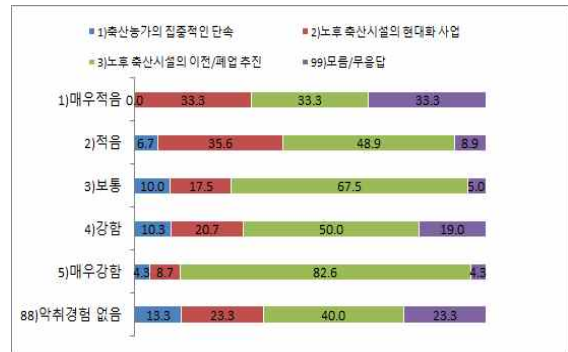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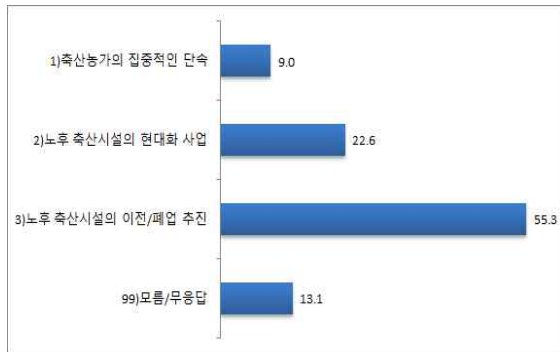
- 축산악취 발생원인으로는 축산농가의 관리 부실(46.7%)과 노후축사 개선 미흡(43.2%)로 꼽음
- 악취강도를 강하게 느낄수록 행정기관의 단속 부재도 지적함(지난 조사결과와 유사)

4 축산악취 개선도



- 지난해 대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도는 39.7%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11.6%는 '매우 개선'됐다고 답함
- 특히 3년 이상 거주자 중 85.8%가 개선된 것으로 응답함

5 축산악취 저감 정책 방향



- 향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축산시설의 이전/폐업 추진을 55.3%로 높게 평가함
- 이는 악취강도를 강하게 느낄수록 더욱 명확함

03 개선방안

● 교육·홍보 정책 장려

- 축산악취 발생원인 및 특성에 대한 교육을 확산하고 저감사업 및 악취개선 장기비전을 공유하여 이해당사자간 불신 제거

● 축산악취개선 개선 추진성과 및 과제 워크숍 개최

- 축산악취 개선정책의 점검을 통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선진기술 도입

● 축산악취저감 조례 제정

- 법제화를 통한 사회갈등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산업의 부흥을 도모